

삼성토탈, 고분자 기술아카데미 개설

삼성토탈은 충남 대산공장에 고분자 기술아카데미를 개설해 수요처 임직원들에게 품질경영과 석유화학 기술 교육을 제공한다고 11월18일 발표했다.

삼성토탈 기술아카데미는 국내외 최고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강사로 나서 합성수지 전 제품의 특징과 가공기술에서 새로운 기술동향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집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분자 관련지식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.

삼성토탈 기술아카데미는 11월17일부터 2일간 40여개 수요처를 대상으로 품질경영 및 기술지도 세미나를 열고 대산공장에 비치된 실험기자재 시연 및 PE(Polyethylene)와 PP(Polypropylene) 등 주요 합성수지 공장견학 기회도 제공했다.

이원 삼성토탈 연구소장은 “주요 거래선인 플라스틱 가공기업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교육기회를 갖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객과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행사를 마련했다”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05/11/21>